

음악·먹거리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 '물씬'

대인동 '남도달밤야시장 시즌2' 가보니

문화예술·체험활동 다채...인파 '복적'·시장 '활기' 테이블·주차공간 '아쉬워'...광주 명소 등극 소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착각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점차 개선돼 대인예술시장이 광주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남도달밤야시장으로 탈바꿈한 27일 오후 7시에 찾은 시장은 그야말로 ‘불야성’이었다.

먹거리와 문화예술,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어우러져 이곳 야시장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주말 밤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서다.

때문에 상인들의 얼굴에선 그간 보기 힘들었던 웃음이 만개했고 시장도 모처럼 복적였다.

이날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장 몰린 곳은 골목 곳곳에 위치한 ‘푸드코트’였다.

수제 떡갈비와 닭꼬치, 전 등 각종 주전부리를 판매하는 가게와 부스 앞 어느 곳 하나 가릴 것 없이 긴 줄이 늘어섰다. 짧게는 5-10분, 길게는 20-30분 가량 줄을 서야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함께 온 지인들과 이야기꽃을 피워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이윽고 두 손 가득 음식을 안은 시민들은 공연장 옆과 시장 골목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먹거리를 나누며 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다국적 뮤지션 밴드 ‘드리머스’의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 여름밤 시장 골목을 타고 울려 퍼지는 노래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잠시 멈추며 정취를 만끽했다.

별별상상정원에서 진행된 ‘냉채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기 쿠킹클래스와 ‘한평갤러리’에서 열린 전시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 높은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음식·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구성으로 조성·재개장한 ‘남도달밤야시장’ 덕에 이날 시민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김모(28)씨는 “먹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 덕에 즐거운 주말

저녁이었다”며 “시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잠깐이나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고 귀띔했다.

다만 시장 내 부족한 테이블과 주차 공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 시장 곳곳에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등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혼잡한 시장 내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뒤엉키면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때문에 시민들은 추후에 열린 야시장에선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소원하기도 했다.

두 자녀와 함께 시장을 찾은 시민 유

모(48)씨는 “온가족이 함께 나온 주말 나들이가 너무 즐거웠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한참 떨어진 곳에 두고 걸어와야만 했다”며 “일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만족도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그렇지만 3년 만에 재개장한 야시장이 너무나 훌륭하게 조성돼 다음 회차 야시장도 아이들과 함께 올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점차 개선돼 대인 야시장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도달밤야시장 시즌2’는 오는 9월3일에도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10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인예술야시장 홈페이지(<https://daenya.imweb.me>)를 참고하면 된다.

/인재영기자



지난 27일 저녁 광주 동구 대인예술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남도달밤야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예리기자

광주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공모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 분야 온라인 홍보와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3기 청년 서포터즈 112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9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자는 29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광주·전남경찰,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112신고 광주 15%·전남 32% ↑...전수 모니터링 등 적극 대응

명절연휴기간 112 신고건수가 평시와 대비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광주·전남경찰청은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 명절을 맞아 치안수요가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총력대응해 시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29일부터 9월12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연휴기간 광주지역 112 신고건수는 평시와 대비해 일평균 15.9% (1천826건) 증가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14건)와 대비해 일평균 78.6% (25건) 높았다. 전남지역 또한 평시대비 명절 기간 지난해 112 신고건수가 32.3% 증가했다.

이에 광주·전남경찰청은 추석연휴 전 학대예방 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조사표’를 활용해 긴급입시조지 결정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소재불명자 검거에 집중하고 고지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은 또 명절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현금취급업소 2천138개소와 원로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정밀한 방법진단을 통해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 점포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오복기자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

☀ 해돋이 06:03 해질 19:04
달돋이 07:32 달짐 20:18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청소 좋아요)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해)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3:34	08:44
목포	30-30		15:37	20:50
순천	30-30	여수	10:14	04:03
여수	30-30		22:35	16:13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30/화 ☁ (21/26)	☁ (20/23)	☁ (20/24)	☁ (20/24)	☁ (21/26)	☁ (26/31)
31/수 ☁ (22/27)	☁ (19/27)	☁ (19/22)	☁ (19/26)	☁ (21/25)	☁ (25/28)
9월 1/목 ☀ (20/29)	☀ (20/29)	☁ (18/27)	☁ (18/28)	☁ (19/29)	☁ (23/28)

▶날씨안내 : 국민뉴스131

“직장인 34% 코로나 확진 뒤 근무”

직장갑질119 ‘코로나 영향’ 조사...4.8%는 출근

코로나19 이후 이직 경험,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근무한 직장인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28일 발행한 정책보고서 ‘정규직은 아파도 출근했고 비정규직은 아파서 가난해졌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는 지난 6월 10-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 1월 이후 이직 경험이 있는 비

정규직은 48.0%로 정규직(16.2%)의 3배 수준이었다. 이직 후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정규직(35.1%)보다 비정규직(49.5%)에서 더 많았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하는 기간에 근무한 직장인도 상당수 됐다. 응답자의 65.7%는 일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29.5%는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4.8%는 격리를 해야 함에도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확진 뒤 근무한 이들은 ‘대신 말아줄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전남자치경찰위, 홍보콘텐츠 공모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남경찰청과 함께 오는 10월11일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전남도 자치경찰의 모습과 역할’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과 어울리는 내용을 포스

터, 일러스트레이션, 웹툰 등 다양한 그림 작품으로 표현하면 된다.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이거나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 등 형식은 자유다.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과 함께 10월 11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365일 동화같은 즐거움!

봉선동화시장으로 오세요!

봉선시장의 이모저모

- 새로워진 봉선시장 게이트
- 어린이 전통시장방문 프로그램
- 봉선동화축제 퍼레이드
- 2018전국우수시장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사랑의 김장나눔축제
- 나눔물품 기부

흥이 나고 부자되는 상인, 놀이가 있는 부담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봉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남구** 문의 : 062)650-2099